

# 근대기 서예 · 전각가 金台錫(1874-1951)의 생애와 예술 활동 \*

유 지 복 \*\*

1. 머리말
2. 김태석의 생애
  - 1) 가계 및 행적
  - 2) 사승 및 교유관계
3. 김태석의 예술 활동
  - 1) 전반기(1874-1926), 궁내부 관료 및 재중 시기
  - 2) 중반기(1927-1937), 중국에서 귀국 후 국내 활동 시기
  - 3) 후반기(1938-1951), 渡日 및 귀국 후 국내 활동 시기
4. 맺음말

## 1. 머리말

惺齋 金台錫(1874-1951)은 19세기 말엽부터 해방기에 걸쳐 활동한 서예가이자 전각가이다. 그는 1948년에 제작된 대한민국 제1호 국새 ‘大韓民國之璽’의 제작을 주도하고,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을 지낸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직함 인장 및 중화민국의 국새를 새긴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또한 해방 직후에는 전국적 규모의 서예단체 大東翰墨會를 조직하여 서예의 부흥에 앞장서는 등 해방전 · 후기 서단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서예 · 전각가로서 위상이 남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4514).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름에도 불구하고 근대 미술계에 그의 업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짧아 그의 행적을 포함한 예술 활동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석은 삼십대 중반에 궁내부 미술시찰위원으로 청에 파견되어 오십대 중반에 귀국하기까지 약 20여 년간을 중국에서 활동하였으며, 귀국한 뒤 약 10여 년간을 국내에서 활동하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 직전 다시 귀국하는 등 생애의 대부분을 외유로 보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청에 파견되기 전 高宗과 英親王의 인장을 새기는 한편, 화재로 손상된 《寶蘇堂印存》 모각 사업에도 참여하여 왕실 인장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10여 년 동안은 전주를 비롯한 호남서화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적지 않다. 또한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뒤에는 대동한 묵회를 조직해 서예의 대중화를 꾀하는 한편, 전국적 규모의 전람회를 성황리에 이끄는 등 1930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해방 공간에서 그가 이룬 예술적 성취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김태석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전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김태석에 관한 연구는 海岡 金圭鏞의 아들로 한국전각협회(1974년 창립) 초대 회장을 지낸 金晴江(‘晴江’은 호, 본명은 金永基)이 1974년부터 이듬해까지 『月刊 文化財』에 우리나라 전각에 관해 연재한 5차례의 글을 통해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이 논고에서 김태석이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印鑄局에서 활동할 당시 위안스카이를 위해 새겨준 公·私印 및 각 府縣의 官印을 소개하였다. 또한 대한제국기에 화재로 없어진 《보소당인존》의 인장을 고종의 명으로 모각 제작할 때 김태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언급하여 전각가로서의 그의 업적을 일반에 처음으로 알렸다.<sup>1)</sup>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34종의 인보집을 소개하면서 김태석이 중국·일본 및 국내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제작했던 《乘槎印譜》·《清游印譜》·《東游印譜》·《南游印譜》 등 7종의 인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김태석의 전각활동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sup>2)</sup>

1) 金晴江, 1974 『韓國의 印章藝術』 『月刊 文化財』 9월호 통권33호, 月刊文化財社, 10-17면.

이후 김태석에 관한 연구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다가 김태석이 전주에서 체류하던 1930년경 서화가 李光烈·崔圭祥 등이 김태석을 스승으로 모시며 篆隸와 篆刻을 배웠던 사실이 알려졌고,<sup>3)</sup> 이 연구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김태석의 전각을 주제로 다룬 이연숙의 연구가 이어졌다.<sup>4)</sup> 이연숙의 연구는 김태석의 생애와 전각의 특징을 밝히는 한편 서풍도 간략하게 다뤄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연구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1908년 帝室美術委員으로 청에 파견되기 전까지의 생애, 그리고 중국에서 귀국한 1926년 이후의 국내 활동, 1938년 일본에 다시 건너갔다가 귀국하기까지의 행적, 1944년 영구 귀국한 이후 사망하기까지의 국내 활동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김태석 관련 자료는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94년에 김태석의 후손에 의해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 김태석 유품 153점은 김태석의 서예·전각세계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기증 자료는 인장 실물을 포함하여 각종 印譜와 書帖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김태석이 일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14건의 尺牘은 김태석의 이삼십 대 행적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또한 여러 인보와 서첩은 사승과 교유관계를 살피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일본외무성 기밀문서와 근대기에 생산된 각종 신문기사는 북경에서 요시찰 대상이었던 사오십 대 김태석의 모습과 서예·전각 활동에 매진하던 노년의 모습을 복원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김태석의 생애와 예술 활동 전반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방 전후기 서예가이자 전각가로 활동했던 그의 삶의 지향과 예술적 성취가 어떠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金晴江, 1975 『韓國篆刻印章論』 『月刊 文化財』 6월호 통권42호, 月刊文化財社, 23-25면.  
 3) 崔銀淑, 2006 『曉山 李光烈의 書畫世界』, 원광대학교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13-14면.  
 4) 李蓮淑, 2007 『惺齋 金台錫의 篆刻 研究』, 대전대학교대학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동지, 2007 『惺齋 金台錫의 篆刻 研究』 『書藝學研究』 10, 158-17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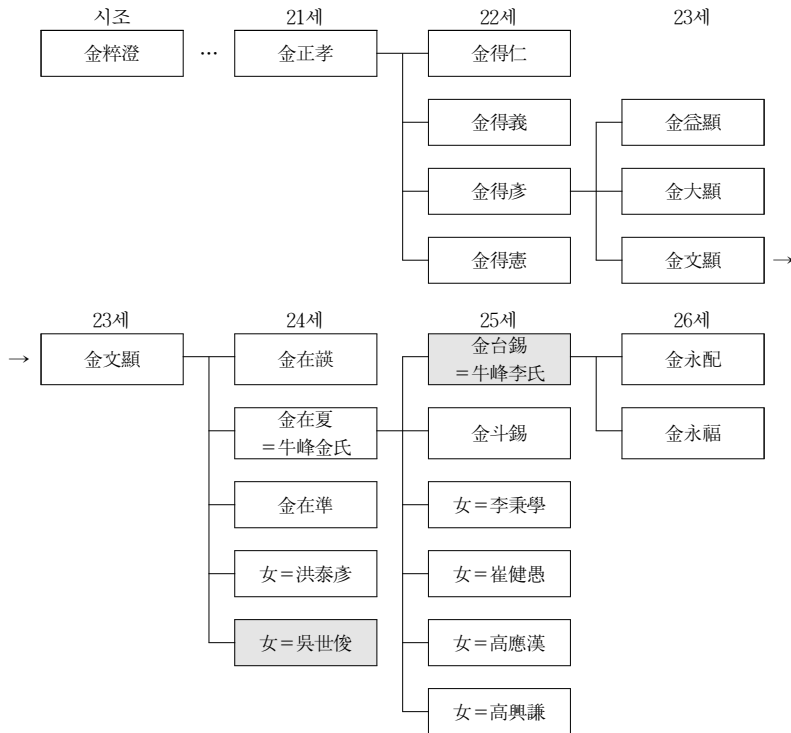
## 2. 김태석의 생애

### 1) 가계 및 행적

#### (1) 김태석의 가계

김태석의 본관은 樂安이고, 자는 公三, 호는 惺齋, 당호는 古鼎山房이다.<sup>5)</sup> 1874년 6월 21일 경기도 경성부 長橋洞 72-2번지(현 서울 중구 장교동 일대)에서 부친 金在夏(1849-1922)와 모친 牛峰金氏(1849-1921)의 사이에서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sup>6)</sup>

〈표 1〉 김태석 가계도



5) 국립민속박물관에 김태석의 인영을 모아놓은 《古鼎山房印存》과 吳慶錫이 攷定하였던 금석문을 모아 엮은 《古鼎山房收藏金石字》이 있다. 이를 통해 김태석이 ‘古鼎山房’이란 당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6) 김태석이 평창군수로 있던 1907년에 작성한 이력서: 金永豪 等編, 1965 『樂安金氏世譜』, 전북 長水郡 長溪 文化堂印刷所.

김태석의 본관 낙안은 경주가 원적이다. 고려 명종 때 金粹澄이 정난공신으로 樂安君에 봉해진 이래로 김수징을 시조로 하는 낙안김씨가 파생되었다. 김수징의 21세손으로 김태석의 고조부 되는 金正孝는 영조 41년(1765) 갑과에 응시하여 음양과에 합격하여 관상감에서 복무하였으며,<sup>7)</sup> 증조부 金得彦 역시 정조 22년(1798) 음양과에 합격한 이래로 줄곧 관상감 소속 관원으로 있으면서 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sup>8)</sup> 조부 金文顯은 算學·籌學 교수를 거쳐 적성 현감을 지냈고,<sup>9)</sup> 부친 金在夏는 음양과에 합격해 관상감 소속인 三曆官을 거쳐 懿寧園을 지내는 등 김태석의 집안은 대대로 전문 기술직을 세습하며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나갔던 중인 가문이었다.<sup>10)</sup>

김태석의 외가 역시 기술직 중인 가문으로, 모친 牛峰金氏는 한학전공의 역과 출신 金載信의 딸이었다. 김태석은 태안 이씨 李知善의 딸과 혼인했으나 일찍 사별하였고, 대대로 주학을 전공한 李鈺의 딸 牛峰李氏(1874-1939)와 재취하였다.<sup>11)</sup> 김태석의 부친 김재하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그 중 첫째는 洪泰彦에게 출가하였다. 흥태언은 대대로 주학을 전공한 남양 홍씨 집안 출신으로, 본인 역시 주학으로 취재시에 선발되어 고종 때 통례원 소속으로 인의를 지냈다.<sup>12)</sup> 둘째 여동생은 해주 오씨 집안의 吳世俊과 혼인했다. 오세준은 부친 吳慶然과 마찬가지로 한학을 전공한 역관 출신으로, 그의 숙부가 바로 개화기 때 역관으로서 국내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吳慶錫이고 그의 사촌동생이 吳世昌이다. 즉, 김태석 고모부의 사촌동생이 오세창이고 오세창 사촌형수의 조카가 김태석인 셈이다. 비록 가까운 촌수는 아니지만 해방 전후기 서화미술계를 이끌었던 오세창과 김태석이 인척간이라는 사실이 새삼 주목된다.

7) 『승정원일기』 영조 41년(1765) 3월 23일 무술; 영조 46년(1770) 윤 5월 8일 계축; 정조 1년(1777) 8월 19일 임자.

8) 『승정원일기』 철종 1년(1850) 12월 26일 계미.

9) 『승정원일기』 고종 14년(1877) 12월 12일 임진; 金永豪 等編, 앞의 책.

10) 『승정원일기』 고종 25년(1888) 4월 5일 병술.

11) 牛峯李氏大宗會 編, 2002 『牛峯李氏世譜』 仁, 家乘미디어, 818면.

12) 『승정원일기』 고종 21년(1884) 3월 1일 병자.

## (2) 김태석의 행적

김태석은 18세 되던 1891년(辛卯)에 식년시로 치러진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었다. 30세에 궁내부 통신사 전화과 주사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32세에 평昌郡守를 지냈으며, 35세인 1908년에 궁내부 제실미술위원으로 일본을 잠시 다녀온 뒤 같은 해 청으로 건너갔다. 청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으로 바뀐 뒤로 20년 가까이 줄곧 중화민국의 印鑄局 관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興華實業銀行 운영에 적극 가담하다 53세 되던 1926년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10여 년간 전주 등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65세 되던 1938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6년간 머문 뒤 해방 직전인 1944년에 71세의 나이로 영구 귀국하였다. 이후 1946년에 전국적 규모의 서예단체인 대동한묵회를 창립하여 서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남쪽으로 피난하여 경북 경산군 하양에 임시 거처하던 중 1951년 9월 10일 78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김태석의 행적은 후손택에 소장되어 있는 4종의 이력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sup>13)</sup> 평창군수로 있던 1907년에 작성한 이력서,<sup>14)</sup> 북경으로부터 귀국한 이후 1930년에 작성한 이력서, 1948년의 이력서와 사망 이후에 작성된 〈惺齋先生略歷〉이 그것이다. 4종의 이력서는 궁내부 소속으로 있을 때의 관력과 중화민국 관원으로 있을 때의 이력을 살필 수 있다. 그밖에 흥화실업은행 활동과 귀국 이후의 활동은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문서와 김태석이 작성한 각종 인보, 근대기 고신문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상 열거한 자료를 참고해 김태석의 행적을 작성하면 <표 2>와 같다.

13) 4종의 이력서는 김태석의 전각을 주제로 2007년에 석사학위논문을 쓴 李蓮淑 씨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14) 1907년에 작성한 이력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114면에 실린 김태석의 이력서와 동일하다.

〈표 2〉 김태석 행력

연도	연령	기사	제작 인보 및 저술
1874	1	6월 21일, 서울 중구 長橋洞 72-2에서 출생	
1891	18	10월, 식년 사마시에 생원 합격	
1903	30	10월, 宮內府 通信司 電話課 主事(判任官 8등)	
1904	31	6월, 內藏院 工業課 주사(관입관 6등)	漱玉軒印存 寶蘇堂印存(모각본)
		6월, 尙衣司 주사(관입관 5등)	
		10월, 軍器廠 技師(奏任官 6등)	
1905	32	4월, 陸軍幼年學校 教官(주임관 6등)	
		10월, 강원도 平昌郡守(주임관 6등)	
1907	34	6월, 신병으로 평창군수 사직	
1908	35	4월, 궁내부 帝室美術委員으로 일본 동경 출장	乘槎印譜
		9월, 궁내부 제실미술위원으로 청 북경 출장	清游印譜
1909	36	11월, 淸 天津 小站 陸軍工程營 餉械委員	
		3월, 청 천진 소참 육군공정영 庶務委員	金性齋四體書法
1912	39	4월, 中華民國 國務院 秘書廳 庶務科長	
		6월, 중화민국 吉林省 榆樹縣 知事	
1913	40	9월, 天津 英租界에서 잡화상 興亞洋行 설립 경영	
		9월, 중화민국 印鑄局 印信科 薦任技正	袁總統私章
1915	42	10월, 중화민국 總統府 秘書上行走 겸직	
			璽印圖攷(민속15604) 中華各府縣印文
1919	46	신병으로 중화민국 총통부 비서 사직	古鼎山房印存 (1919년 이전 제작)
1920	47	3월, 중화민국 湖北督軍署 諮議	
		4월, 중화민국 交通部 京漢京綏鐵路局 人事科 特別辦事	
1921	48	7월 21일 모친 牛峰金氏 사망	
1922	49	6월 29일, 부친 金在夏 사망	
		11월, 北京興華實業銀行 설립, 상무이사	
1924	51	2월, 자금난으로 흥화실업은행 와해	
1926	53	6월, 중국에서 귀국	
1930	57	전주에 일시 체류	
1931	58	6월, 전주공회당에서 서포전람회 개최	南游印譜
1932	59	12월, 대구공회당에서 서도전각반포회 개최	
1936	63		隨見輯
1938	65	渡日, 6월, 일본 최초 書道篆刻學校 초대 교장	
1943	70		性齋蒐集韓國名士印譜
1944	71	일본에서 귀국	東游印譜
1946	73	大東翰墨會 창립	中等習字帖(二)
1948	75	대한민국 제1호 국새 제작	璽印圖攷(민속15606)
1951	78	9월 10일, 경북 慶山郡 河陽面 琴樂洞에서 작고	

김태석이 평창군수 재직시 작성한 이력서에는 그의 본적이 장교동 72-2번지로 나오고, 당시 거주지는 漢城 南署 大坪坊 甫什外契 下犁洞 23통 3호로 나온다. 下犁洞은 지금의 중구 수하동·장교동·을지로2가 부근으로 김태석이 태어났던

장교동 일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당시 장교동 집에서는 부친 김재하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목판인쇄소를 운영했다고 한다. 수공으로 작업해 직접 글씨를 쓰고 판각하고 인쇄하였다고 한다. 뽕땡뽕화점(현, 서울 중구 장교빌딩)이 있던 곳이 장교동에서 운영하던 인쇄소 자리였으며, 목판인쇄 사업으로 '여덟 대문 있는 집'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sup>15)</sup>

김재하는 주로 예빈시 소속 관원으로 있다가 갑오개혁 이후 처음 설치된 學務衙門의 主事로 관직생활을 마감했다.<sup>16)</sup> 그가 천문·번역·교육을 주로 담당했던 학무아문 소속이었고, 따로 목판인쇄기술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볼 때 그가 남다른 기예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김재하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은 김태석이 훗날 서예와 전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원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태석이 평창군수가 되기 전까지 거친 직책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자리였다. 군기창이나 육군유년학교 등 개편된 지 얼마 안 돼 축소되거나 폐지된 기구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05년 6품의 관직을 지내다 정3품으로 승급하였다. 무너진 肇慶壇을 보충하는 일에 공훈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7)</sup> 그가 한직을 지내다 동년 가을에 평창군수에 임명되었는데, 이 역시 조경단 수개실적에 따른 승급이 큰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태석은 평창군수를 사직한 이듬해 1908년에 帝室美術委員으로 시찰의 임무를 띠고 일본 동경과 청 북경에 파견되었다. 제실미술위원 직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일본시찰사무원이 여러 차례 파견된 바 있어, 그 일환으로 임시 설치한 직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이 1904년 경운궁 화재사건 직후 《보소당인준》 등 왕실 관련 인보 제작에 참여했던 공적도 제실미술위원으로 임명된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 북경에 미술위원으로 파견되었던 김태석은 이후 청 육군에 소속되어 天津

15) 이상은 김태석의 손자 김규상 씨(1937년생)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김규상 씨는 김태석의 장남 金永配의 4남으로 현재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고 있다.

16) 『승정원일기』 고종 31년(1894) 9월 29일 임인.

17) 『승정원일기』 고종 42년(1905) 5월 7일 기묘; 고종 42년 6월 13일 을묘.



으로 주거를 옮겼고, 중화민국 건립 이후 1912년에는 잠시 길림성 유수현의 지사로 있다가 다시 천진으로 돌아왔다. 일본 외무성 소장 기밀문서를 보면 김태석이 청으로 파견된 뒤로 행동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김태석이李大王(고종)의 자금으로 上海에서 상업에 종사하다 실패하였고, 1912년 9월 천진으로 옮겨 영국 조계에서 영국 상인으로 귀화한 조선인 朴道一의 자본으로 잡화상 興亞洋行을 운영하였다고 한다.<sup>18)</sup> 고종이 실제로 김태석에게 자금을 댄는지, 또는 그 자금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부에서는 대한제국 이왕가에서 김태석을 청에 파견한 목적이 겉으로는 미술시찰을 표방하였지만,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보낸 요원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sup>19)</sup>

김태석은 이듬해 1913년에는 중화민국 政事堂 印鑄局에 소속되어 촉탁직으로 근무하였다.<sup>20)</sup> 그해부터 약 5년간 총통부 비서직을 겸직하였는데 당시에 중화민국 국새를 비롯하여 초대 총통 위안스카이의 인장 및 각 府縣의 관청에서 사용하던 인장들을 대거 제작하였다. 김태석은 1919년 총통부 비서직을 사임하였다. 당시 支那特命全權公使가 작성한 문서에는 김태석이 인주국 기공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상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sup>21)</sup> 이를 보면 김태석이 인주국에 근무하는 한편 전에 설립했던 흥아양행을 계속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은 1921년 7월 모친상에 이어 1922년 6월 부친상을 당하였다. 『낙안김씨세보』에 의하면 두 분 다 長湍郡 津西面 景陵里에 합장한 것으로 되어 있

18) 조선총독부, 『鮮人秘密團挽河會ニ關スル件』 기밀 제13호, 1916년 2월 8일.

19) 김태석과 함께 1922년 北京興華實業銀行 설립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 김규홍은 1906년 고종의 특명으로 상해 俄淸銀行에 맡겨둔 비자금을 찾아 중국에서의 한인 무관 양성을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사전에 발각돼 실패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종의 자금과 김태석의 상해행은 고종의 비자금과 관련된 김규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종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김규홍에 대한 고종의 특명과 관련해서는 배경한, 2011 『신해혁명과 한국: 김규홍의 廣東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212, 287면 참조.

20) 조선총독부, 『要視察朝鮮人ニ關スル件』 기밀 제63호, 1916년 2월 28일.

21) 조선총독부, 『北京在留朝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기밀 제108호, 1919년 3월 5일.

다.<sup>22)</sup> 그런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尺牘》에는 김태석이 집안 상사로 인해 고위 관료로 있던 외숙에게 뒷자리와 가묘를 부탁하며 주고받은 간찰이 실려 있는데, 가묘를 만든 곳이 景陵里라고 표기되어 있다.<sup>23)</sup> 당시에 왕래한 편지가 부모의 상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태석이 1926년에 중국으로부터 귀국하기 이전에도 부모의 상사를 포함한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기 위해 가끔 조선을 왕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 흥화실업은행 개막 기념사진, 범재 김규흥 기념사업회 제공

이후 김태석은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金奎興(일명 金復, 1872-1936)과 함께 1922년 11월 한중합작의 北京興華實業銀行을 설립해 상무이사로 참여하였다. 1922년 11월 4일 개막식 행사를 개최할 당시의 개막 기념사진(그림 1)이 전해지고 있다.<sup>24)</sup>

22) 景陵里는 고려 문종의 경릉이 있던 마을로, 현 관문점 동북쪽에 위치한 북한지역이다.

23) 《尺牘》 11, 12번째 간찰(이후 간찰 순번만 표기). 《尺牘》은 김태석과 부친 김재하가 지인 및 집안사람들과 왕래한 간찰 114건을 모아 일괄 필사한 자료이다. 몇 건을 빼고 대부분 김태석이 1908년 청에 가기 전에 왕래한 편지들로 김태석의 친필로 추정된다.

24) 사진은 김규흥선생기념사업회(www.kimguyheung.or.kr): 김상철·김상구, 2010 『범재 김

앞줄 왼쪽 첫 번째가 金昌淑, 두 번째가 李會榮, 다섯 번째가 金규홍, 일곱 번째가 申采浩, 그 옆이 金태석, 한 사람 건너 金九, 金태석과 金구 뒷줄 중앙이 朴容萬 등 북경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한인 독립인사들이 대거 한 자리에 모였다.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는 흥화실업은행 설립이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sup>25)</sup>

北京에 있는 독립단의 수령 朴容萬이 독립운동의 자금을 얻기 위하여 북경에서 興國實業銀行이라는 것을 경영하든바, 요사이는 그 은행을 興華銀行이라고 곳치고 열심히 주식을 모집하며 여러가지로 발전책을 연구한다는대, 그는 표면으로는 그 은행과 아모 관계가 업는듯이 차리고 북경 교외에서 농사를 하며 北滿洲와 간도에 있는 동지들과 연락하여가지고 자금으로써 토지를 사서 여러 독립단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표면으로는 농민이라 하고 내용으로는 屯田兵 같은 제도를 설립할 계획이라더라.

위의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흥화실업은행 발기의 최종목적은 은행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개간회사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위한 둔전병제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sup>26)</sup> 당시 기사에는 흥화실업은행 설립 주체가 박용만으로 되어있지만, 북경에 있던 일본 공사관 측의 기밀문서에는 박용만, 김복, 金태석이 중국인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한 것으로 되어있다.<sup>27)</sup> 그런데 북경시 문서기록보존소 檔案館의 기록을 보면 당시 흥화실업은행을 실제로 운영했던 임직원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사회 이사장은 김복, 상무이사는 한인 金태석과 중국인 安毅堂·朱芝庭, 이사는 傅子靑 및 張昭文이 소개한 중국인 2명, 총지배인은 張昭文, 부지배인은 朱肇林, 은행장은 吳鵬臯, 부은행장은 張夢奎였다.<sup>28)</sup>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金규

규홍과 3·1혁명』, 이담Books, 211면.

25) 『동아일보』 1923년 4월 14일, 『朴容萬의 暗中飛躍, 은행을 빙자하고 屯田兵養成』.

26) 흥화실업은행의 독립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孫麗紅, 2015 『金復의 둔전병제 독립운동과 興華實業銀行』 『한국근현대사연구』 72, 147-177면; 金昊珍, 2015 『凡齋 金奎興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74, 156-186면 참조.

27) 조선총독부, 『北京天津附近在任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기밀 제123호, 1925년 3월 20일.

28) 『江西河口鎮商會呈爲張昭文聲明脫離興華實業銀行總理職務將其所有經過該行證件抄送察核由』.

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김태석이 상무이사를 맡은 점이 주목된다.

김태석은 앞서 1908년 제실미술위원으로 청 북경에 출장을 왔다. 오자마자 그는 통역을 담당할 외교관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기 시작했다.<sup>29)</sup> 이를 계기로 북경과 천진을 오가며 잡화상을 경영하는 한편, 1913년 중화민국 인 주국과 총통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인장 제작을 통해 북경 정부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한 바 있다. 이러한 김태석의 경력은 흥화실업은행 창립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중국인과의 교섭을 담당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업을 시작한 흥화실업은행은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중국 측 참여 인사들과의 경영 갈등과 은행 내부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경영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북경 경찰청이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정산을 결정하자 1924년 2월에 영업을 종료했고, 은행의 와해로 김규홍과 김태석은 일시 잠행했다.<sup>30)</sup>

한동안 몸을 숨겼던 김태석은 북경에서의 활동을 접고 1926년 여름에 귀국했다.<sup>31)</sup> 이후 1930년 겨울 전주에 들렀고, 이듬해 초여름에는 광한루 춘향사당에 편액을 거는 일로 남원을 들렀다.<sup>32)</sup> 김태석은 전주와 남원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전주, 광주, 대구 등지를 돌며 서포전람회 및 서도전각 반포회 등을 개최하며 호남·영남지역 인사들과 교류하며 명성을 쌓기 시

1924년 4월 3일, J181-019-42301. -北京市檔案館 자료(孫艷紅, 앞의 논문, 162면에서 재 인용).

29) 이러한 정황은 《清游印譜》에 실린 인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유인보》는 국립민속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30) 조선총독부, 위의 문서 기밀 제123호, 흥화실업은행의 실패 및 원인에 대해서는 孫艷紅, 앞의 논문, 166-172면.

31) 김태석의 이력서 2종에는 동일하게 1926년 여름 6월 28일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931년에 작성한 《南游印譜》 말미의 〈略歷〉과 사망 이후에 작성된 〈惺齋先生略歷〉에는 모두 1928년 여름에 신병으로 인해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32) 후손 김규상씨의 전언에 의하면 1930년대 초반 남원의 서도회 관련 인사들이 김태석을 모시고 가 일주일 남짓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시에 써서 걸었던 〈春香烈女祠〉 편액이 현재 남원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남아있다. 춘향 초상을 그린 이당 김은호는 1939년에 춘향 초상을 봉안한 후에 김태석이 편액을 써서 걸었다고 하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金殷鎬, 1981 『書畫百年』, 中央日報社, 181면.

작했다. 김태석이 1936년에 작성한 《隨見輯》(민속 15630)에는 『古文眞寶』 등에 실린 역대 고전명구를 다양한 서체로 베껴놓았다. 제목 밑에 글자 수와 병풍 폭 수를 세필로 써놓은 경우도 있어 작품 제작에 대비하기 위한 명구모음집 형식을 띠고 있다. 당시 작품제작 요구와 수용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서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십여 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던 김태석은 1938년 두 번째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다.<sup>33)</sup> 그해 6월 일본 최초 書道篆刻學校 초대 교장에 추대되었고,<sup>34)</sup> 서도전람회 방식을 통해 일본 조야의 여러 명사들과 교류하였다.<sup>35)</sup> 당시 거처하던 곳의 주소지를 새긴 인영이 전해지고 있다.<sup>36)</sup> 김태석이 거처하던 곳은 도쿄 동편의 麴町區(현 千代田區) 平河町으로 현재의 일본국회의사당 부근이었으며, 그곳에서 성재학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체류하던 6년 동안 수 천 개의 인장을 새기고 그 인영을 17책으로 모은 것이 《東游印譜》이다. 김태석은 1939년 여름 부인 우봉 이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서울 집에 왔다가,<sup>37)</sup> 해방되기에 한 해 전인 1944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귀국하였다. 귀국 후 김태석이 살던 곳은 후손의 말에 따르면 종로4가 건너편 구 전매청 일대로, 종묘의 하마비와 어정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sup>38)</sup> 당시 김태석의 집에 와서 배우던 견습생 서넛이 있었는데, 心堂 金齋仁이 이화여고를 정년퇴임하고 주로 와 있었다고 한다.

김태석은 1946년 전국 단위의 서예 조직 大東翰墨會를 창립하여 활동했으며, 이듬해에는 새로 발족된 서울시 문화위원회 미술부(서도) 위원에 선정되었다.<sup>39)</sup>

33) 후손 김규상 씨의 전언에 의하면 김태석은 당시 첫째 손자 璉相과 둘째 손자 弼相을 데리고 일본에 함께 건너갔다고 한다.

34) 『동아일보』 1938년 6월 30일, 『日本最初の 篆刻校 校長은 金台錫翁 復舊 潮流에선 巨匠』.

35) 金晴江, 1975 『韓國篆刻印章論』, 앞의 책, 23면.

36) 김태석의 동경 주소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韓國名刻家印集》 8책의 惺齋金台錫印藝(上)에 실려 있다.

37) 후손 김규상 씨의 전언에 의하면 1939년 6월 25일 부인 우봉 이씨의 사망으로 김태석이 잠시 귀국하여 7일장으로 장사를 치른 뒤 다시 도일했다고 한다.

38) 1948년 작성 이력서에는 주소가 종로구 훈정동 2-4번지로, 현재 종묘 정문인 외대문 부근에 해당한다.

39) 『자유신문』 1949년 3월 23일, 『市藝術委解體코 文化委員會 新發足』.

1948년에는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명으로 대한민국 국새를 포함 정부 각 산하기관의 인장을 제작하였다. 김태석은 이후 동두천으로 잠시 이거했다가 거기서 6.25전쟁을 맞았다. 1.4후퇴 때 연고가 전혀 없는 경북 경산군 하양면 금락동(현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부근)으로 내려가 피난살이를 하다 1951년 9월 10일 작고했다.<sup>40)</sup>

## 2) 사승 및 교유관계

### (1) 사승관계

김태석의 師承과 관련해서는 우선 小堂 金奭準(1831-1915)과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석준은 추사 김정희의 말년 제자로, 중국과 일본을 다수 왕래하여 청·일의 문사들과 광범위한 교유를 갖는 한편, 국내 여항문인서화가들과의 활발한 교유를 통해 19세기 문예방면에 뚜렷한 성취를 보인 역관 출신의 문인서예가이다.<sup>41)</sup> 김석준은 평소 교유했던 인물들을 회상하는 방식의 시집을 두 편 남겼다. 『紅藥樓懷人詩錄』(1869년 刊)에 이어 1903년에는 속집의 성격을 띤 『紅藥樓續懷人詩錄』을 지어 119인의 인물을 묘사하였다. 김태석에 관한 묘사도 있는데, ‘침착하되 어디에 얽매이지 않으며, 깊이 사유하여 사물을 표현하고, 정밀하게 묘사하되 形似에 치우치지 않고 능히 골수를 배운 사람’이라고 하여 그의 성정과 예술적 재능을 높게 평가하였다.<sup>42)</sup> 김태석은 『홍약루속회인시록』에 金允植, 金得鍊, 高永喆, 朴謙載와 함께 발문을 남겼다. 1899년 26세 때의 글이다. 발문 첫머리에 김태석은 스스로 ‘선생에게 배운지 이미 여러 해’라고 하여 그가 스

40) 김규상 씨의 말에 따르면 6.25 발발 당시 둘째형 김필상이 군인(소령인가 중령)이라 트럭으로 하양까지 김태석을 먼저 태워줄 수 있었다고 한다.

41) 김석준의 문학과 서예에 관해서는 한영규, 2007 『추사의 말년제자 김석준(金奭準)의 『연백당초집(研白堂初集)』』 『문헌과해석』 40, 198-214면; 서한석, 2009 『金奭準과 『孝里齋逸集』에 대하여』 『漢文學報』 21, 473-497면; 柳志福, 2011 『小堂 金奭準의 書藝』 『秋史研究』 9, 11-54면; 김동건, 2013 『조선 후기 회인시(懷人詩)의 인물 형상화 방식: 김석준(金奭準)의 회인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1, 7-33면 참조.

42) 金奭準, 『紅藥樓續懷人詩錄』 『金愷齋台錫司馬』(林燦澤 編, 1986 『閭巷文學叢書』 第5冊, 驪江出版社, 675면) “沈著而淡蕩 琴韻奏松月 研思惟狀物 眞共靜乎發 精妙非形似 攝意能學骨.”

무 살을 전후한 젊은 나이에 김석준의 문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尺牘》의 간찰 중에는 소당 김석준이 지어 보내준 율시를 보고 김태석이 답답한 마음이 잠시나마 풀렸다거나,<sup>44)</sup> 김태석이 처남 李秉九의 부탁으로 김석준에게 편액 글씨를 청하자 김태석에게 대신 써주도록 한 일이 있다.<sup>45)</sup> 더구나 처남이 보낸 편지 중에는 김태석이 스승 김석준을 집에 초빙하여 한동안 함께 지냈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어,<sup>46)</sup> 김석준과 김태석이 이른 시기부터 詩·書を 통해 끈끈한 사제의 연을 맺었음을 알려준다.

김석준이 六橋詩社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47)</sup> 《尺牘》에 김태석이 몇몇 육교시사의 구성원들과 교유한 정황이 보이는데, 이는 스승 김석준의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김태석이 스승 김석준으로부터 시서에 대한 안목을 키운 사실은 김석준의 문집에 자세히 실려 있다. 김석준이 『詩經』으로부터 杜甫詩에 이르는 중국 역대 시의 내력과 함께 초학자가 갖추어야 할 작시 태도를 자세히 논하는 한편,<sup>48)</sup> 청의 서예가 鄧石如(1743-1805)의 예서를 임서한 김태석의 글씨에 대한 감상평과 함께 예서를 쓰는 書訣을 자세히 언급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김태석의 글씨에 대한 감상평과 예서 서결에 대한 개략은 다음과 같다. 김석준은 김태석의 예서에 대해 틀이 잘 정돈되어 있어 소산한 운치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이런 수준의 글씨를 쓸 정도라면 분명히 漢 〈孔宙碑〉를 만

43) 金奭準, 『紅藥樓續懷人詩錄』, 위의 책, “台受學于先生已數年矣… 己亥嘉平月上澣門生金台錫跋.”

44) 《尺牘》 10 “小堂宅所抵詩律 學式潛志 少通茅塞 然才本淺劣 何可望入妙境.”

45) 《尺牘》 51 “懸扁書櫟于小堂丈 則使弟代筆爲教 以庸才未免畫虎也 然而謹當奉副矣.”

46) 《尺牘》 64 “向聞小堂丈 不久還駕云 果爾耶.”

47) 김석준의 육교시사 활동에 관해서는 鄭玉子, 1981 『詩社를 통해서 본 朝鮮末期 中人層』, 『韓洙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489-524면; 배기표, 2012 『六橋詩社의 결성과 시세계(Ⅰ)』, 『漢文學報』 27, 191-222면; 崔植, 2017 『19세기말 20세기초 閭巷文人の交遊樣相: 六橋詩社의 向背와 殘影』, 『東方漢文學』 71, 153-178면 참조.

48) 金奭準, 『孝里齋逸集』, 『論作詩贈金惺齋』.

49) 金奭準, 『孝里齋逸集』, 『題金惺齋臨鄧頑伯隸帖後』, 내용과 번역은 柳志福, 2011 『小堂 金奭準의 書藝』, 『秋史研究』 9, 26-28면.

저 익혔을 것이라고 극찬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漢碑가 가짜가 많아 漢隸를 익히는 사람들이 다만 외형만 빼닮게 쓸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魏晉 이후의 예서 가운데 한예의 정체를 간직하고 있는 〈天發神讖碑〉·〈孔羨碑〉·〈受禪碑〉를 익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청말의 명필 鄧頑伯(등석여)이 천발신참비 등을 익혀 서법이 일변했음을 강조하여 틈나는 대로 등완백의 서첩을 임서할 것을 충고하였다.



〈그림 2〉 김태석, 〈仿鄧完白篆法〉 부분, 1909년, 石印本 26.9×15.2cm 《김성재사체서법》所收.  
 〈그림 3〉 등완백, 〈四體帖〉 부분, 1792년, 紙本 29.7×44.2cm.

김태석이 1909년 청 연경에 갔을 때 예서·전서·해서·행초로 쓴 네 가지 서체를 석인본으로 영인한 필첩이 있다. 바로 《金惺齋四體書法》이다.<sup>50)</sup> 이 가운데 전서 필적(그림 2)은 “등완백의 篆法을 모방하여 고시 칠언절구 2수를 썼다(仿鄧完白篆法錄古詩七絕二首).”는 관지가 말미에 적혀있다. 등완백의 현전하는 필적 중에도 〈四體帖〉(그림 3)이 있는데,<sup>51)</sup> 김태석의 〈사체서법〉과 첩명이 유사하고 내용도 거의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태석이 틈나는 대로 등완백의 글씨를 임서할 것을 권고했던 스승 김석준의 가르침을 잘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金惺齋四體書法》은 첩의 앞뒤로 1909년에 쓴 淸 陸潤庠의 서문과 古禮圖의 발문이 있다. 서책의 내용은 漢 〈乙瑛碑〉를 임서한 예서, 등완백의 전서를 모방한 고시 전서, 안진경의 〈麻姑仙壇記〉를 임서한 해서, 淸 何紹基 서풍이 물씬 풍기는 〈李白詩 襄陽歌〉를 쓴 행초가 실려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51) 등완백의 〈四體帖〉은 下中邦彦 編, 1961 『書道全集』 제24권, 東京: 平凡社, 도 2~13.



김태석은 목판인쇄소를 운영하던 부친 김재하의 영향으로 전각에 일찌감치 눈을 떴을 것으로 짐작된다. 1904년 경운궁 화재사건으로 인한 《寶蘇堂印存》 모각본 제작 사업에의 참여는 그의 전각 인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모각본 제작 과정에서 당대 전각계의 최고 수준이었던 丁學敎(1832-1914), 劉漢翼(1844-1923), 姜璣熙(1851-1919)와의 만남을 통해 전각에 대한 김태석의 안목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석준은 정학교·강진희가 서화는 물론이고 인장을 새기는 솜씨가 더욱 뛰어나 淸人이 이들이 새긴 인장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여 당대의 최고수로 평가한 바 있다.<sup>52)</sup>

정학교는 김석준보다 한 살 아래로, 젊은 시절부터 이들이 지기로 만났던 정황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석준이 33세 되던 1863년 9월 보름에 지기 정학교, 윤석년, 고영주 등과 함께 북한산의 금선암과 도봉산 일대의 천축사·망월사 등지를 유람했다.<sup>53)</sup> 정학교가 그의 문집 첫머리에 벗으로서의 사림이 가장 두터운 사람으로 김병선, 최성학, 서상우와 함께 정학교를 꼽은 것을 보면 둘 간의 교우가 남달랐음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sup>54)</sup>

김석준이 정학교에게 자신의 호인 등을 새겨줄 것을 부탁하며 인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초유의 재주를 얻었다고 평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sup>55)</sup> 그는 전각에 관한 한 정학교를 우리나라의 제일로 평가했다. 김태석은 스승 김석준을 통해서 정학교의 刀法을 일찍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학교는 관직생활을 위해 1867년에 경성부 水下町(현재 중구 수하동)으로 이주한 뒤 한동안 그곳에서 거주하였다.<sup>56)</sup> 김태석 역시 종로구 장교동에서 태어나 1906년 평창군수로 부임할 때까지

52) 金奭準, 『孝里齋逸集』 『孝里齋筆記』 “幸有近人丁香壽·姜菁雲 二人之書畫 已爲超凡之才 而印才尤賢於書畫 淸人見之 皆嘖嘖不已 是爲書畫家之幸矣.”

53) 金奭準, 『研白堂初集』 권4, 『(癸亥)九月望日 共丁香壽學敎 尹石鼎錫年 高貞石永周 宿金仙菴』. 이 시 뒤로 「天竺寺」로부터 「登望月寺後道峰」까지 4수가 있어 이들의 유람 정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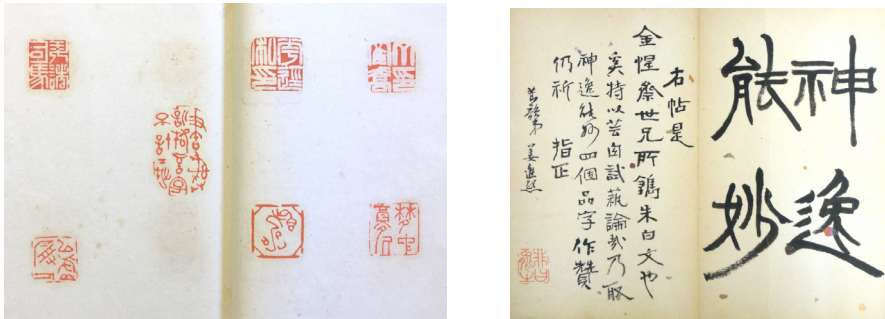
54) 金奭準, 『研白堂初集』 “金秉善·丁鶴喬·崔性學·徐秋堂等 友交最厚.”

55) 金奭準, 『孝里齋逸集』 『寄香壽』 “客冬所懇鄙號及六客印章 尙未奏刀耶 余雖不會篆籀之結構 曾聞其概於阮堂公 …君則胸眼自足 況天機穎發 印得我東初有之才 齟縷衷情, 諒速圖焉.”

56) 김시빈, 2016 『몽인 정학교(1832~1914)의 괴석화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6면.

지 한성부 대평방 下梨洞(현재 중구 수하동·장교동 일대)에 거주하였다. 김태석이 정학교와 지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김석준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을 개연성이 높다.

국립민속박물관에 김태석이 오세창과 정학교의 인장을 수집하여 만든 인보(그림 4)가 있다. 《惺齋蒐集吳世昌印譜》(민속 15616)로 제목만 보면 김태석이 오세창의 인장을 모아 만든 인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쪽에 오세창, 뒤쪽에 정학교의 인영이 실려 있다. 정학교의 인영은 38방으로,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사인이다. 이 인보는 김태석이 오세창과 정학교를 찾아가 그들 수중에 있던 인장을 그 자리에서 찍은 뒤 나중에 인보첩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인보는 김태석이 오세창은 물론 정학교와 전각으로 교류했음을 알려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림 4〉《惺齋蒐集吳世昌印譜》부분, 20.3×13.1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5〉《古鼎山房印存》부분, 23×13.4cm, 국립민속박물관.

김석준이 정학교와 함께 당대 전각의 최고수로 꼽았던 강진희 역시 스승 김석준을 통해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태석이 전각으로 강진희와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김태석 자신의 성명과 자와 호인을 찍어 만든 《古鼎山房印存》(민속 15623)이라는 인보(그림 5)이다. 말미에 강진희의 품평이 있는데 ‘神逸能妙’라는 대자의 예서를 써서 김태석의 인장을 찬미하였다. 아울러 이 첩이 김태석이 직접 새겨 만든 인보임을 밝히며 김태석을 ‘世兄’으로 부르고 있다. 강진희의 몰년을 고려할 때 1919년 이전에 작성된 인보로 보이는데, 김태석

집안이 강진희 일가와 대대로 교분을 맺어왔음을 알려준다. 강진희가 직접 새겨 평소에 쓰던 인장을 찍어 인보로 만든 《夢未幻室所藏朱白文》(민속 15618)이 김태석의 소장품으로 남아있었다는 점도 이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강진희 일가는 1905년까지 한성 南署 薰陶坊 履洞에 거주했다.<sup>57)</sup> 履洞은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3가·저동2가·초동 일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곳과 김태석의 거처였던 장교동은 걸어서 10분 정도의 지근거리이다. 따라서 김태석은 젊었을 때부터 강진희 일가와 가깝게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 강진희가 김태석 집안에 보낸 간찰이 있다.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었는지 도움을 청하며 보낸 편지이다. 편지를 보낸 시기가 적혀있지 않지만 김태석이 중국으로 가기 전 즈음으로 추정된다. 평소의 정을 믿고 몰염치한 부탁을 하니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간곡한 편지이다.<sup>58)</sup> 특히 ‘평소의 정’을 내세운 점은 《고정산방인준》에 ‘세형’이란 호칭을 쓴 방식과 유사하다. 강진희가 1904년 10월 30일 軍器廠 技手로 임용된 적이 있는데, 김태석도 강진희보다 열흘 정도 앞선 19일 군기창 기사로 임용되었다. 이들은 이듬해 2월 관계개편에 따라 군기창이 폐지될 때까지 같은 소속의 동료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59)</sup> 이처럼 젊은 시절부터 맺어온 인연을 통해 김태석이 강진희로부터 전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2) 교유관계

김태석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서예와 전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부터 쌓아왔던 서예·전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다. 그 과정을 형성해가는 데 있어서 스승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배경이 되었겠지만, 주변 인물들과의 다양한 교유 역시 그의 예술적 기량을 넓히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집안사람들 혹은 동료들과 주고받은 간찰을 모아놓은 《척

57) 金榮煜, 2017 『靑雲 姜璣熙(1851-1919)의 생애와 서화 연구』 『미술사연구』 33, 44면.

58) 《尺牘》 74 “賙貧之誼 濟窮之風 終古有之 賴生多焉 敢恃平昔之情 仰瀆沒廉之言 佛眼左盼 特垂慈悲 千萬祈望 靑雲弟姜璣熙拜托.”

59)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914면(강돈희), 114면(김태석).

독》 자료를 통해 그의 이삼십 대 청년기 삶을 살펴보겠다.

김태석은 일가 중에 큰집의 종형 또는 처남과 자주 편지 왕래를 하였다. 김태석은 종형에게 종이의 사용 또는 보관과 관련된 일용품을 보내주는 한편, 王羲之帖과 古文眞寶 등 법첩과 명적을 구해달라고 하였다.<sup>60)</sup> 또 연이어 古文眞寶와 陸放翁의 시를 구해달라고 청한 것을 보면 주변에서 글씨 학습을 위한 법첩을 구하는 한편, 역대 명구와 시문을 적어둔 자료집을 만들어 작품제작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뤘던 《隨見輯》에 고문진보에 수록된 명문과 역대 명시가 상당 수 실린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김태석이 주변으로부터 글씨 청탁을 자주 받는 한편, 지은 시를 서로 보여주며 의견을 교환하는 작시활동도 중요한 일상 중 하나였음을 알려준다.<sup>61)</sup>

김태석은 궁내부 소속 동료 李教善에게 전에 부탁받은 글씨 수십 폭을 써주는 한편, 이교선을 통해 3냥을 주고 당나라 서예가 柳公權의 법첩을 구하였다.<sup>62)</sup> 진사시 동년 白文鏞에게는 앞서 동한시대의 예서 〈西嶽華山碑〉 법첩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법첩을 갖고 있는 金石年이 이를 빌려주지 않아 애를 먹었고, 결국 틈을 내 산수도 유람할 겸 직접 와서 임서해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기까지 하였다.<sup>63)</sup> 전보사주사로 근무했던 백문용의 근무지가 개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도 서예 법첩을 구하는 일이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개성으로 한 번 들러달라는 백문용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김태석은 결국 개성의 김석년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12월 7일에 김태석에게 보낸 김석년의 편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서악화산비〉 임서는 몇 번이나 하였는지 김태석에게 물어보며 인편으로 몇 장 보내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김태

60) 《尺牘》 23 “就達 紙幘·排尺·千字抄紙 依下戒伏送 考納若何 向便大塊與新抄 依受伏感 而羲之半字帖與古文眞寶 從後便 下借付送伏望.” 종형은 백부 金在諤의 3남 金必錫으로 추정됨.

61) 《尺牘》 25 “茲伏達古文眞寶與放翁詩 從後便付送 伏希伏希 兩度下幘 忙未各幅上謝 少恕 并下覽伏望 下示瓊章 奉讀再三 不覺肩聳 頗若暗室生光矣.”

62) 《尺牘》 81 “教索明絀二端 與客夏頰囑聯書數十幅 柳公權法帖價三兩伴呈 並查收爲荷.”

63) 《尺牘》 52 “啓者 赴館時要求西嶽華山碑貼事 卽往軍巖金石年丈宅 極力放棄 則未能許施奈何 …鄙邊則里程不遠 隨隙枉駕 遊覽江山 然後法帖做臨如何.”

석의 집에서 운영하던 목판인쇄소에서 만든 새해 달력이 매우 정교하다는 말을 듣고 달력 8부도 함께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sup>64)</sup> 달력을 받은 12월 26일에는 품질이 좋은데 싼 값으로 쳐줘 고맙다는 말과 함께 35냥을 보내왔다.<sup>65)</sup> 世兄이란 호칭을 쓴 것을 보면 김석년 또한 김태석 집안과 대대로 친분을 맺어온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김석년은 조선 말기의 화가로 호가 石年인 金準榮(1842-?)을 가리킨다. 스승 김석준과도 친분이 있어 '맑고 야윈 학과 같고 서화에 기이한 재주를 갖췄다'는 평가를 들었던 인물이다.<sup>66)</sup> 김석준의 시어에도 보이듯이 그는 말년에 개성에 서실을 짓고 자오하였다. 김태석이 <서악화산비> 법첩을 베끼러 간 곳이 바로 그 서실이였다. 김준영은 이듬해 10월에도 최근에 쓴 예서와 전서 몇 폭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새해 달력도 부탁하였다.<sup>67)</sup> 김태석은 안질에 걸린 부친을 돌보느라 붓을 놓은 지 오래됐다는 답장과 함께 지난번에 어떤 선비와 수창할 때 지은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하였다.<sup>68)</sup> 이처럼 김태석과 편지를 왕래한 주변 인물들의 주요 관심사는 詩·書였다.

金雨均은 김석준과 함께 李尙迪의 문하였던 崔性學의 제자로, 한문 편지쓰기 교본인 『尺牘完編』을 간행하고 1910년에는 同文書林 출판사를 직접 경영한 인사이다.<sup>69)</sup> 그는 김태석에게 명말의 서화가 董其昌의 법첩을 빌려 글씨 학습을 하는 한편,<sup>70)</sup> 詩洞私塾의 접장으로서 河橋私塾의 접장으로 있던 김태석에게 시회를 열어 자웅을 겨룰 것을 청하였다.<sup>71)</sup> 별지에는 시회를 개최하는 절차에 대한

64) 《尺牘》99 “奉別多月 懷想奚似 恭維侍社增重 頌禱頌禱 華山碑臨 過幾回否 祈便中寄我數條也 …啓者新曆 想非久頒行 而曾聞貴宅所造者 極精矣 茲奉懇 上紅粧二件 中紅粧六件 錄價付送.”

65) 《尺牘》101 “新曆八件 品佳價廉 可知另念異常 多感多感 該價額三十五兩 未即奉上.”

66) 金爽準, 『紅藥樓續懷人詩錄』, 『金石年準榮僉樞』, “清瘦渾如鶴 雙絕抱奇才 上國多心契 尺素年年來 近享林泉樂 崧陽築書室.”

67) 《尺牘》104 “想隸書篆字之學, 益進精妙, 近作數幅, 祈便中賜示, 以廣眼福, 企所望焉.”

68) 《尺牘》106 “曾往與奇士唱酬之時 應有零金碎墨可玩者 幸須隨便附示 剔開茅塞.”

69) 홍인숙, 2010 『근대 척독집 연구: 김우균의 『척독완편(尺牘完編)』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 61-84면.

70) 《尺牘》59 “董玄宰帖 今既竣臨 茲還趙 並希覽收.”

간략한 규정도 써놓았다. 詩洞은 수포교 아래 일대 마을이고 河橋는 종로구 장사동에 있던 마을이다. 김태석의 거절로 시회가 비록 성사되지 못했지만 19세기 말 광통교 일대에서 활발한 시사모임을 가졌던 기술직 중인들의 시회 활동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海隣尺素』는 李尙迪(1804-1865)이 역관으로 청에 갔을 때 교유했던 학자 61명으로부터 받은 편지 279통을 모아 엮은 책이다.<sup>72)</sup> 현재 15종의 전사본만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책을 구해보는 일이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웠던 모양이다. 김태석이 누군가에게 이 책을 빌려주며 아침저녁으로 어루만지는 것이니 빨리 베끼고 돌려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책을 몹시 애지중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3)</sup> 『해린척소』가 당대 청조를 대표하는 문인·명사들의 생각이 담겨있고 선진 문화와 문물에 대한 고급 정보가 실렸다는 점에서 몇 년 뒤 청을 향할 김태석에게는 매우 소중한 서적이었을 것이다.

김태석이 가장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처남 李秉九(1868-1936)이다. 이병구는 인천과 평양 전보사주사를 거쳐 정3품 비서감승에 오른 인물이다. 장남 金永配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릴 정도로 친근한 사이였다.<sup>74)</sup> 김태석이 장남을 낳고 마음이 들떠있는 중에도 河北書樓에서 지은 시를 보내며 刪正을 구한 것을 보면 詩才도 겸비한 인물로 보인다. 이보다 한 해 앞선 1897년에는 이병구가 김태석에게 편지를 보내 가까이 지내던 동료 白文鏞이 개성으로 임지를 옮기고 韓宗翊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며 희비가 교차하는 마음을 전했다.<sup>75)</sup> 당시 백문용은 궁내부 소속

71) 《尺牘》 78, 79. 1898년(광무 2) 6월 17일과 22일에 왕래함.

72) 정후수, 2012 『譯官이 다투어 읽던 중국인의 편지, 『海隣尺素』의 가치』 『한국어문학연구』 59, 355-383면.

73) 《尺牘》 109 “海隣尺素 依教送呈 然此是昕夕摩挲者也 從迷謄出 卽爲還微 伏企伏企.”

74) 《尺牘》 48 “弟省狀姑依 渾眷無故 今十九日未時 量得一豚兒 慶則慶矣 以我無似爲人父 雖爲少愧慰悅 親心莫此爲比 以是感喜耳 近者消受 去益無料 而日遊於河北書樓 偶得俚句 故茲仰呈 幸須刪正如何.” 『낙안김씨세보』에 아들 김영배의 생년이 1898년 12월 19일로 되어 있어 편지의 내용과 일치한다.

75) 《尺牘》 41 “其間白兄文鏞移任開城 韓兄宗翊伴僚同務 悲歡一般 …此札傳致于惺堂兄爲希.”

인천전보사 주사로 있다가 개성전보사 주사로 임용되었으며, 한종익은 인천전보사주사로 임용되었던 것이다.<sup>76)</sup> 직장 이전 소식을 자세히 알린 것을 보면 김태석도 이들과 꽤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편지 말미에 따로 이 편지를 惺堂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다. 惺堂은 후에 서화협회 회장과 조선 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서예계를 대표했던 金敦熙(1871-1937)를 가리킨다.<sup>77)</sup> 이 편지를 통해 김태석과 김돈희가 20대 젊은 시절부터 친분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김태석은 이병구의 편지를 전해주려 했지만 길이 워낙 먼데다 김돈희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해 전하질 못했다. 그러던 중에 김돈희가 최근에 개성의 監探官이 되어 그곳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이병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sup>78)</sup> 1897년 8월 보름에 감채관이 되어 개성으로 가서 근무하던 김돈희는 한 달도 채 못 돼 임지에서 동생의 부고를 들었다. 그리고 10월 초에 개성에서 김태석에게 아래의 편지를 보냈다.

“...지난달 초에 가운이 불길하여 화가 이어져 동생이 졸지에 변고를 입었습니다. 수족을 잃어 비통할 뿐만 아닌데 남은 자식들의 모습이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맡은 일은 곡절이 많아 전혀 흥취가 없는데다 상경할 날은 아마 다음 달 보름이나 돼야할 것 같으니 몹시 우울할 따름입니다. 그간 형은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분명 문장이 크게 진보하셨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만나 얘기하기로 하고 이만 즐입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제 김돈희 돈수.”<sup>79)</sup>

동생이 갑작스레 죽은 비통한 심정과 함께 새로운 임지에서의 일이 마음 같지 않음을 적어 보낸 편지이다. 편지 앞 쪽에는 知己된 도리에 한 통의 편지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김돈희는 동생이 급사하기 2

76)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5월 29일 정사.

77) 김돈희의 생애와 서단활동에 관해서는 金潤卿, 1998 『惺堂 金敦熙의 書藝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78) 《尺牘》 42 “付抵惺堂書函 便路絕遠 又未知家在何處 未得傳致 而其益間 借宮內部筮啣 日前往作松營監採官爲之 喜幸無比.”

79) 《尺牘》 54 “...去月初 家運不吉禍連 舍弟卒地酷變 非但失手之痛 膝下情境 可勝言哉 此處所幹事 間多委折 沒趣莫甚 而上京之期 想在來月望間 頗甚鬱杳耳 其間兄之消遣以何做去 想應文章大進 是所暗祝 餘在面晤 姑此先請大安 弟金敦熙頓首.”

년 전에 부인 경주 이씨를 병으로 잃은 바 있다. 연이은 집안 상사로 경황이 없던 시기에 자신의 암울한 심정과 새로 옮긴 임지의 고달픔을 편지로 곧장 하소연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우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석준은 일찍이 키가 훗칠하고 글씨에도 뛰어난 김돈희의 모습을 떠올리며 白蓮詩社와 琴結詩社에서 함께 시를 지으며 어울렸다는 회상을 시로 남겼다.<sup>80)</sup> 김돈희를 회상한 시가 실린 스승의 문집에 김태석이 발문을 남긴 것이 1899년이니 김석준과 김돈희의 詩交는 그 이전이라 할 수 있다. 김돈희의 연보에 해당하는 <惺堂年記>에는 김돈희의 형이 1880년에 낙안 김씨 金在瑀의 딸과 혼인한 기록이 있어, 바로 아래 항렬인 김태석과는 먼 인척관계를 이룬다.<sup>81)</sup> 이처럼 스승을 통한 또는 인척간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된 배경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김태석이 오경석·오세창 부자와 먼 인척간이라는 사실을 잠시 거론한 바 있다. 또한 김태석이 오세창의 인장을 수집하여 만든 《성재수집오세창인보》를 통해 이들이 전각으로 일정한 유대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였다. 김태석이 평창군수를 그만두던 1907년 당시의 거주지는 南署 大坪坊 下犁洞이다. 하리동은 지금의 수하동·장교동·을지로2가 부근으로 부친 김재하가 목판 인쇄소를 운영하던 장교동도 이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광통교 일대에 해당하는 이곳은 당시 기술직 중인들의 세거지로, 오세창도 1878년 京城府 水標橋 町(청계천 2가)으로 거처를 옮겼다.<sup>82)</sup> 김태석의 집과 지근거리여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내왕했을 개연성이 크다.

김태석의 소장품 중 《海隣書屋印契》라는 인보가 있다.<sup>83)</sup> 제목에 李尙迪의 서재를 뜻하는 ‘海隣’이 써여 있어 원래 이상적이 소장했던 인보임을 알 수 있다.

80) 金奭準, 『紅藥樓續懷人詩錄』 『金惺堂敦熙員外』, “琅玕高百尺 枝葉佛雲宵 天質多惺慧 翰墨續清超 蓮圓琴堂月 幾度共風騷. (세주)共白蓮又琴結詩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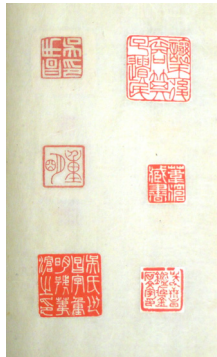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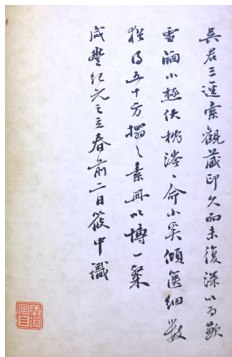
81) “庚辰(1880)月日 舍兄娶樂安金氏在瑀.”

82) 개화기 광통교 일대 문화후원층의 세거지에 대해서는 김취정, 2013 『개화기 서울의 문화유통 공간: 광통교 일대의 서화·도서 유통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3, 50-54면.

83) 《海隣書屋印契》(민속 15622)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 1851년 제작 인보이다. 이상적의 성명, 자, 호 관련 인장 50여 방이 찍혀 있다.



이 인보는 이상적이 청조의 명사들로부터 받아 간직하던 자신의 인장을 찍어 제자 오경석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만든 인보이다. 맨 끝에 이상적이 자필로 쓴 발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발문 뒤에는 오세창의 수장인이 찍혀있는 걸로 보아 오경석 사후에도 그의 집안에 줄곧 간직해 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그런데 이 인보가 어떻게 김태석의 유품으로 남은 것인지 의아하다. 아마도 오세창이 김태석의 요청으로 인보를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연유가 아닐까 싶다. 이밖에 김태석이 한국 명사들의 인영을 수집해 만든 《惺齋蒐集韓國名士印譜》(민속 15615)가 있다(그림 7). 여기에 실린 인영 가운데 오경석·오세창 부자의 인영은 전체 비중의 절반이나 된다. 또한 김태석은 오경석이 고증하였던 금석문의 탁본을 자신의 당호를 써서 《古鼎山房收藏金石字》(민속 15637)라는 서첩으로 꾸민 바 있다(그림 8). 거기에 보면 오경석이 직접 금석문자를 고증했음을 뜻하는 ‘吳慶錫攷正金石文字’ 인장이 찍혀있다. 이상 거론한 인보와 서첩이 김태석의 유품으로 남았다는 것은 김태석이 오경석·오세창 부자와 가까이 지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림 6> 《海隣書屋印契》 부분, 22.5×16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7> 《惺齋蒐集韓國名士印譜》 부분, 19.2×12.9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8> 《古鼎山房收藏金石字》 부분, 29×18.4cm, 국립민속박물관.

### 3. 김태석의 예술 활동

김태석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궁내부 관료로 활동하던 시기와 청에 파견되어 있던 재증시기(1874-1926), 중국에서 귀국 후 국내에서 활동하던 10여 년의 시기(1927-1937), 재차 일본에 건너가 활동하다 해방 직전 다시 돌아와 한국전쟁 무렵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던 시기(1938-1951)이다. 이제 세 시기를 기준으로 김태석이 서예와 전각으로 활동했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겠다.

#### 1) 전반기(1874-1926), 궁내부 관료 및 재증 시기

김태석은 궁내부 관료로 있던 1904년에 인보집 《漱玉軒印存》(그림 9)을 제작하였다. 漱玉軒(현 증명전)은 1901년에 지어진 황실도서관으로, 1904년 경운궁(1907년 이후 덕수궁으로 개명) 화재사건 이후 고종의 집무실인 편전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이 인보는 고종의 자·호인과 사인, 고종의 7번째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英親王 李垕의 자·호인 등을 새겨 찍은 인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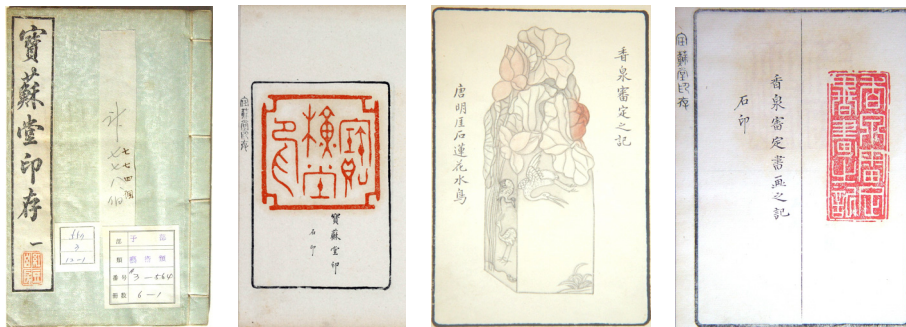
〈그림 9〉 《漱玉軒印存》 표지, 고종 호인 및 영친왕 왕세자인·호인,  
29×18.4cm, 국립민속박물관.

표지에는 예서로 ‘漱玉軒印存’이라고 쓴 제첩이 붙어있고, 그 옆에 “이 인보는 덕수궁 광무황제 때 保用할 옥새와 인장을 새긴 것이다.”라고 김태석이 직접 쓴 별지가 따로 붙어있다. 표지 안쪽에는 ‘光武八年甲辰三月’이라는 간기를 써놓아 1904년 3월에 제작한 인보임을 알려준다. 경운궁에 화재가 난 것이 양력으로 4

월 14일이었으므로,<sup>84)</sup> 화재 사건 직후 고종이 수옥헌으로 편전을 옮긴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보에 실린 인영은 모두 47방으로, 크게 고종과 영친왕의 인영으로 나뉜다. 맨 앞에는 고종을 대상으로 새긴 御寶용 인장들과 장수를 기원하는 인장 및 자·호인이 있고, 뒤로는 영친왕을 대상으로 새긴 자·호인 및 왕세자·황태자인 등이 있다. 이 인장들이 쓰인 용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고종이 화재사건 이후 집무를 보던 곳이자 영친왕이 1907년에 황태자에 책봉된 뒤 일본에 인질로 가기 전까지 지냈던 장소를 상징하는 인장들이 실려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1904년 경운궁 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보 제작은 《寶蘇堂印存》(그림 10)으로 이어졌다. 《보소당인존》은 원래 태조 이래 列聖의 御用 인장을 헌종 때 申緯와 趙斗淳이 모아서 만든 인보집이다. '香泉'·'元軒' 등 헌종의 아호 관련 인장을 비롯하여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문인들의 인장, 명·청대 인사들의 모각인, 여러 成語와 詞句印 등이 실려 있다. 이 인보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김청강의 말에 의하면 고종 41년(1904)에 경운궁에 화재가 일어나 인장들이 모두 불타버리자 고종이 어느 내시가 간직하던 《보소당인존》 원본을 가지고 정학교, 유한익, 강진희, 김태석 등에게 모각하도록 명하여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한다.<sup>85)</sup>



〈그림 10〉 《寶蘇堂印存》 표지, 寶蘇堂印, 인장모형도와 실인, 20.4×14.1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84) 『高宗實錄』 권44, 41년(1904) 4월 14일.

85) 金晴江, 1975 『韓國篆刻印章論』 앞의 책, 17-18면.

현재 《보소당인존》의 모각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 여러 이본이 전한다. 그런데 어느 것이 현종대의 원본이고 어느 것이 나중에 모각된 이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sup>86)</sup> 특히 장서각소장 《보소당인존》(3-561A)의 경우처럼 인장의 모형을 실물에 찍진하게 묘사한 이본도 있어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석이 정학교 등의 선배들과 함께 작업한 모각본이 과연 어느 것인지도 애매하다. 그런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김태석의 기록이 앞서 다뤘던 《성재수집한국명사인보》에 별도의 낱장 형태로 끼워져 있다. 모각본을 제작하던 당시를 김태석이 회상하며 남긴 〈寶蘇堂印存叙實〉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8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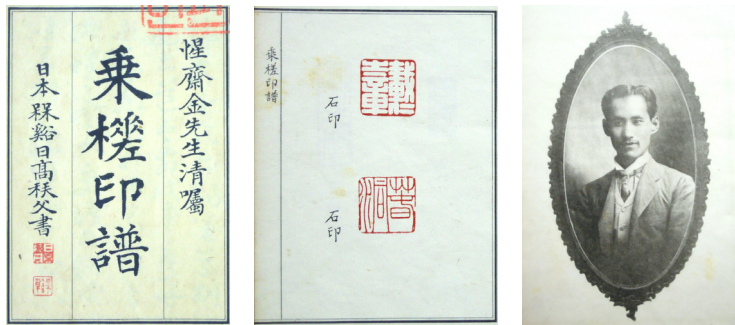
이 인장은 我朝 오백년 동안 열성조께서 사용하던 인장으로 모두 970여 수이다. 창덕궁 안 보소당에 保藏하고 인보를 간행하여 ‘寶蘇堂印存’이라 하고 인장과 함께 보관하였다. 몇 년 뒤 老太王殿下(현종)께서 덕수궁(원 경운궁)으로 移御하실 때 이 인장도 동궁 후원의 眞殿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몇 년이 지나 진전이 갑작스런 화재를 입어 인장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마침 내시 중에 이 인보를 간직하고 있던 자가 있었고, 내가 어명을 입어 이 인보를 기준으로 모각하여 시작한지 5년의 세월이 걸렸다.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했던 『韓國篆刻印章論』(김청강, 1975)의 논지와 유사하다. 아마도 김청강이 김태석의 기록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으로 볼 때 김태석이 《보소당인존》 모각본 제작 사업에 참여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모각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회상한 것을 보면 경운궁에 화재가 난 직후부터 새기기 시작하여 1908년 미술위원으로 출장 가기 전까지 모각사업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보소당인존》 원본의 인장은 본래 970과가 넘는 숫자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재수집한국명사인보》 말미에는 《보소당인

86) 《寶蘇堂印存》에 관해서는 성인근, 2005 『『寶蘇堂印存』의 내용과 이본의 제작시기』 『藏書閣』 14, 213-234면 참조. 성인근은 이 연구에서 장서각 소장 《寶蘇堂印存》(3-563)이 현종대의 원본이고 나머지는 고종대에 모각된 이본으로 추정하였다.

87) 〈寶蘇堂印存叙實〉 원문은 李蓮淑, 2007 『惺齋 金台錫의 篆刻 研究』, 대전대학교대학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6면 참조.

존》의 모각본이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장은 774방이라고 쓴 기록이 점련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에 김태석 등이 작업한 모각본은 원본의 인장 중 200방 가량 적은 774방의 인장만을 모각하여 인보로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서각 소장 《보소당인존》(3-564)본은 6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책의 표지에 '774개'라고 쓴 제첩을 붙여놓아 《성재수집한국명사인보》 말미의 기록과 일치한다(그림 10 표지). 따라서 김태석이 정학교 등 선배들과 함께 모각하여 만든 인보는 장서각에 소장되어있는 《보소당인존》(3-564)으로 추정된다.



〈그림 11〉《乘槎印譜》표제, 載仁親王印, 김태석 초상 사진, 23.7×14.9cm, 국립중앙도서관.

김태석은 35세 되던 1908년(융희 2) 순종의 명에 의해 제실미술위원으로서 일본 동경에 파견된 적이 있다. 당시 약 6개월 간 일본에 머물며 새긴 74과의 인장을 찍어 영인본으로 인보를 간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乘槎印譜》(그림 11)이다.<sup>88)</sup> 인보에 실린 인장은 고토히토 친왕(載仁親王)을 비롯한 일본의 왕족과 유력 정치가 및 명사들의 인장을 새긴 것으로, 각법은 秦·漢대의 고법에 바탕을 둔 인장이 대다수이다. 권두서의 표제는 메이지 시대에 활동했던 히다카 치치부(日高秩父, 1854-1920)의 글씨로, 그는 당시 『尋常小學書キ方手本』이라는 국정교과서를 저술한 저명 서예가이다. 이 인보에는 일본의 유력 인사 및 근대기 일본을 대표하는 전각가들로부터 받은 서문과 평이 실려 있다. 서문 바로 뒤에는 김

88) 《乘槎印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는 《乘槎印譜》의 초고본(민속 15610)이 소장되어있다. 영인본에 있는 김태석의 초상 사진이 빠져있고, 모든 인영을 오려붙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태석 자신의 초상 사진도 실어놓았다. 이 가운데 가와이 센로(河井荃廬, 1871-1945)와 丁未印社를 창설한 도쿄 출신의 근대 전각가 나카무라 란다이(中村蘭臺, 1856-1915)는 《승사인보》에 실린 김태석의 인각에 대해 “端莊함은 고법에 맞고 剛健함은 자신의 뜻을 썼다. 文과 質이 병존하는 것은 전대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바이니 조물주와 같은 경지가 있다.”고 하여 김태석의 전각을 극찬하였다.<sup>89)</sup>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김태석은 그해 가을에 동일한 임무를 띠고 청에 파견되었다. 당시 4.5개월 체류하는 동안 인장 107과를 새겨 2권의 인보집으로 영인하였는데 바로 《清游印譜》(그림 12)이다. 인쪽의 표제는 북경 출신의 서화가 陳敷民이 썼다. 이 인보에 실린 인장은 대부분 청의 정계와 예술계 인사들에게 새겨준 것으로, 여기에도 김태석의 초상이 실려 있다. 주목할 점은 각 인장의 옆면에 누구를 위해 새겨준다는 내용의 간단한 문구와 날짜 등을 새겨 국내 전각가로서는 전문성을 띤 傍刻(側款)의 최초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방각 중 ‘仿秦·仿漢·仿古’라는 문구를 거의 모든 인장에 새겨 그의 전각이 여전히 진·한대의 인장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清游印譜》표제, 保全別墅印과 방각, 김태석 초상 사진, 19×12.7cm, 국회도서관.

이 인보에도 청조 여러 유력 인사들의 서문·찬시·발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청 陸軍部員外郎으로 있던 古禮圖의 서문에 따르면 주한총영사로 있던 馬拱宸이 고례도에게 편지를 보내 김태석을 대접할 것을 부탁했고, 고례도가 김태석이 거처할 숙소를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정계와 학계 인사들 중

89) “端莊合古法 剛健用己意 文質並存 前人所難 有同于神匠.”

에 김태석의 전각을 원하는 이가 매우 많아 일시에 명성이 북경에 떨쳤고, 명·청의 대표적 전각가 文彭과 鄧石如과 비견될 정도였다고 한다.<sup>90)</sup>

북경에서 활동하던 김태석은 이듬해 1909년 2월에 전·예·해·행초 네 가지 서체로 쓴 《金愷齋四體書法》(그림 13)을 석인본으로 간행하였다. 習字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듯 무척 정갈하게 편집된 이 책은 국내 인사 중 근대적 인쇄기술로 제작한 최초의 서예법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예서는 漢隸 〈乙瑛碑〉를 임서하였고, 전서는 청 등완백의 전서를 임서하였고, 해서는 당 안진경의 〈麻姑仙壇記〉를 임서하였다. 마지막에 쓴 행초는 당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친 何紹基(1799-1873)의 서풍이 물씬 풍기는 글씨이다. 여기에 실린 네 가지 서체의 글씨는 그 흐름이 큰 변화 없이 노년까지 이어진 김태석 서풍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치가이자 서예가 陸潤庠의 서문, 古禮圖의 발문, 근대기 중국의 문장가 謝樹璧의 題辭가 있다. 이 가운데 사수벽은 “내가 아는 자들은 모두 그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앞 세대의 翁方剛이나 錢泳 정도나 돼야 필적할만하다.”며 김태석의 글씨를 높이 평가하였다.<sup>91)</sup>



〈그림 13〉《金愷齋四體書法》부분, 26.9×15.2cm,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14〉〈陸海軍大元帥之章〉, 26.6×16.5cm, 《袁總統私章》所收,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15〉〈中華民國之璽〉, 34×29.2cm, 《璽印圖攷》所收, 국립민속박물관.

김태석은 청에 파견된 이후로 여러 부서를 거치다 신해혁명 후 1913년 중화민국 인주국 인신과에 촉탁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 4년(1915)에는 중

90) 古禮圖의 서문은 李蓮淑, 앞의 논문, 76면 참조.

91) “至金石刻畫 則予之所知者 皆不逮 惟先朝翁覃溪錢梅溪兩先生 足以拮抗 而今亡矣.”

화민국의 국새 및 임시 초대총통으로 있던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인장을 다수 새겼다. 위안스카이의 개인 인장을 모은 《袁總統私章》(민속 15605)에는 ‘陸海軍大元帥之章·大總統章·項城袁氏’ 등의 직함인이 실려 있고(그림 14), 《璽印圖攷》(민속15604)에는 ‘中華民國之璽·封策之璽·榮典之璽·大總統印·陸海軍大元帥之印’ 등 중화민국 국새와 임시초대총통 직함인을 포함한 5종의 대형 인영이 실려 있다(그림 15). 특히 《새인도고》의 표지 안쪽에는 중화민국 4년(1915) 1월의 간기와 함께 政事堂 印鑄局 鑄造科에서 만든 專印本을 밝혀놓았고, 맨 뒤에는 교령으로 5개 항목의 조례[鈐蓋條例]를 규정해놓아 중화민국 국새가 실린 인보로서 권위와 정통성이 부각되어있다.<sup>92)</sup>

이밖에 김태석은 경사[수도]의 국무원·대법원 등의 각 부서, 지방의 省, 縣, 軍營, 兵鑑, 關, 鎮 등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장 2천여 방을 새겼다. 그 중 일부를 부친 김재하에게 보내 36개의 인영으로 꾸민 인보가 《中華各府縣印文》(민속 15598)이다. 각 인영에는 印文의 내용과 어떤 종류의 전서체로 새겼는지를 써놓았다.<sup>93)</sup> 인보의 앞부분에 부친 김재하의 題辭가 실려 있는데, 김태석의 金石과 刻印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2) 중반기(1927-1937), 중국에서 귀국 후 국내 활동 시기

김태석은 1926년 53세 되던 해에 중국에서 귀국하여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기까지 10여 년간 국내에서 활동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31년 58세 되던 해에 제작한 《南游印譜》(그림 16)이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되어있는 이 인보는 乾 1책이고 모두 448개의 인영이 실려 있다.<sup>94)</sup>

92) 5개 조례에는 각 인장의 용처와 함께 인장의 재질, 서체, 크기, 인꼭지 장식을 규정해놓았다.

93) 자세한 내용은 李蓮淑, 2007 앞의 논문, 26-29면 참조.

94) 김태석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낱장의 메모 〈惺齋先生印存目錄〉이 후손택에 전한다. 거기에는 《남유인보》가 2,304과에 33책이라고 적혀있다. 김영기 역시 《남유인보》가 총 2,300여 과의 인영을 32권의 책으로 만든 인보집이라 하였다. 金永基, 1980 『東洋美術論』, 友一出版社, 341면. 그러나 《남유인보》의 서문과 약력 기록으로 볼 때 인존목록은 후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후손이 작성한 인존목록을 근거로 삼고 있는 김영기의 전언 역시 오류로 보인다.



《남유인보》는 김태석이 전주를 비롯한 남도 일대를 순회하는 동안 새긴 인영을 모아 만든 인보집이다. 앞쪽에는 당시 전북 도지사였던 金瑞圭(1875-1935)의 서문이 있고, 뒤쪽에는 전주의 서화가 李光烈(1885-1966)의 제찬이 있다. 맨 뒤에는 김태석이 자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약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김태석이 1928년에 병으로 인해 귀국하였고,<sup>95)</sup> 이태 뒤인 1930년 겨울 전주에 와서 붓과 벼루로 낙을 삼는 한편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에 수백과가 넘는 인장을 새겨주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남유인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sup>96)</sup>



〈그림 16〉 《南游印譜》 표지, 卷首題, 崔圭祥印, 22.9×15.3cm, 국립민속박물관.

당시 전주와 김제에서 활동하던 이광렬과 崔圭祥(1891-1956)은 김태석으로부터 전서와 전각을 사사받아 전북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97)</sup> 《남유인보》에는 김태석과의 사승관계가 이미 밝혀진 이광렬과 최규상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의 여러 유력인사와 서화가들의 인장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이광렬·최규상과 함께 翰墨會를 창립하여 전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金熙舜을 비롯하여 許百鍊, 黃宗河, 宋泰會 등 전주, 광주, 군산, 고창을 포함한 호남 일대를 무대로 활약했던 근대서화가들의 인장이 다수 실려 있다(표 3).

95) 김태석의 이력서에는 1926년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 2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96) “戊辰夏因病歸國 庚午冬偶到完山 以筆硯爲娛 而遇有難恕 不分玉石 輒刻酬應 亦不止數百 乃因衆請 新成一冊 名曰南游印 仍作紀念焉.”

97) 金基昇, 1977 『新稿韓國書藝史』, 정음사, 819면(崔銀淑, 앞의 논문, 13면에서 재인용).

이들은 서화를 겸비하여 호남서화단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인물이다. 《남유인보》에 실린 이들의 인영은 호화 성명인이 대다수로, 한 사람이 여러 벌의 다양한 인영이 찍힌 경우도 많다. 이들 외에도 당시를 대표하던 지역 인사와 서화가들의 인장이 대거 수록되어있는데, 이들 모두 김태석과의 교류를 통해 인장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남유인보》에 실린 호남서화가 인영 사례

성명	활동지역	인영	비고
李光烈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趙周昇으로부터 서예와 사군자 사사</li> <li>1927·28년 조선미술전람회회 입선</li> <li>金熙舜·崔圭祥 등과 翰墨會 창립</li> </ul>
崔圭祥	김제·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定稷으로부터 한문과 서예 사사</li> <li>1931년 조선미술전람회 입선</li> <li>1946년 大東翰墨會 창립회원</li> </ul>
金熙舜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주승으로부터 사군자 사사</li> <li>1925·32·33년 조선미술전람회 입선</li> <li>이광열·최규상 등과 한목회 창립</li> </ul>
許百鍊	진주·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3년 동경유학, 남종산수화 전공</li> <li>1922-27년 조선미술전람회 출품</li> <li>1938년 광주에서 練眞會 발족</li> </ul>
黃宗河	개성·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2년 개성에 松都書畫硏究會 설립</li> <li>1924-36년 군산에서 활동</li> <li>군산·마산에서 黃氏四兄弟展 다수개최</li> </ul>
宋泰會	순천·고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부 宋修勉으로부터 서화 사사</li> <li>1922-31년 조선미술전람회 출품 (사군자 6회·서예3회로 9회 입선)</li> </ul>

김태석이 10년간 국내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던 지역은 전주를 위시한 호남지역이다. 《남유인보》의 서문에서 김서규가 밝혔듯이 김태석은 1930년 겨울에 전주에 들어왔는데, 당시 신문지상에 기사화됐던 방문목적은 南鮮視察이었다.<sup>98)</sup> 이듬해 6월에는 호남지방 시찰에 나선 기념으로 전주 靑鶴樓

98) 『每日申報』 1932년 11월 25일, 「金惺齋來邱를 機會로 書幅頒布會開催」.

와 全州公會堂에서 휘호회와 전람회를 개최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sup>99)</sup> 1932년 1월에는 최규상·정운면과 함께 광주를 유력하다가 7월에 전주로 돌아와 중앙여관에 머무르며 휘호회를 열었고,<sup>100)</sup> 같은 해 12월에는 박중양·서병오 등 대구지역 유력인사들의 발기로 전람회를 개최하였다.<sup>101)</sup> 이를 통해 김태석이 호남지역에서 2년 이상을 지냈고, 당시에 교유했던 호남지역의 인사들과는 1941년까지도 서화 전람회 등의 방식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102)</sup>

### 3) 후반기(1938-1951), 渡日 및 귀국 후 국내 활동 시기

김태석은 1938년 65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1908년 東京 시찰에 이은 두 번째 일본행이었다. 그해 6월 일본의 거물 정치인이었던 도야마 미츠루(頭山滿, 1855-1944) 등이 설립한 일본 최초 서도전각학교 초대 교장에 추대되었다. 당시의 소식은 국내에까지 알려져 『동아일보』에 김태석의 초상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되었다.<sup>103)</sup> 도야마 미츠루는 만해 한용운의 사망소식을 듣고 김태석에게 “조선의 큰 위인이 갔다. 다시는 이런 인물이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 일본에도 없다.”고 추모한 정치가로,<sup>104)</sup> 김태석이 당시에 제작했던 《東游印譜》에도 그의 인영이 실려 있다. 당시 일본에서의 활동상을 알려주는 자료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가 華族會館(현 도쿄 霞會館)에서 전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sup>105)</sup> 1938년 당시 일본에 가 김태석을 만난 김영기는 김은호, 이응노, 정운면, 공석우 등과 동경에서 만나 김태석의 숙소를 자주 찾았으며, 김태석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개인 서도전을 개최하며 일본 조야의 명사들과 많은 교유를 가졌다고 한다.<sup>106)</sup>

99) 『매일신보』 1931년 5월 20일, 「惺齋先生 揮毫會開催」: 同 7월 1일, 「惺齋書道會 -申込만二百餘點 大盛況裡終了」.

100) 『매일신보』 1932년 7월 14일, 「地方人事」.

101) 『매일신보』 1932년 11월 25일, 앞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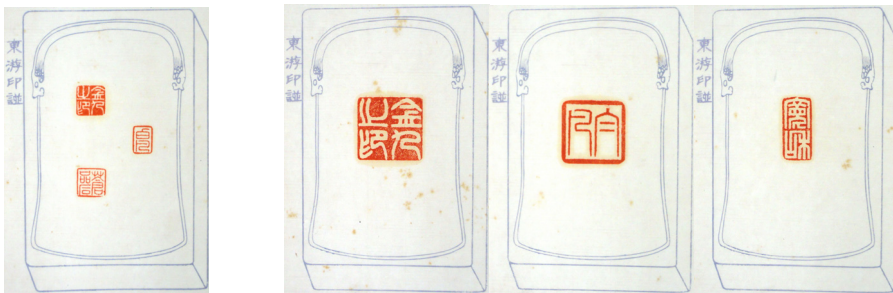
102) 『매일신보』 1941년 12월 17일, 「細民救濟書畫展 -和信,丁子屋 兩處에 大盛況」.

103) 『동아일보』 1938년 6월 30일, 「日本最初の 篆刻校 校長은 金台錫翁 復舊 潮流에선 巨匠」.

104) 박걸순, 1992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72면.

105) 思文閣, 2016 美術人名辭典, <https://www.shibunkaku.co.jp/biography/>

김태석은 1944년까지 약 6년간 일본에서 활동하다 영구 귀국하였는데, 당시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수 천 개의 인장을 새기고 그 인영을 17책에 모아 《東游印譜》를 만들었다.<sup>107)</sup> 이 인보는 김태석이 해방 직전 귀국하기까지 일본에서의 교유 및 활동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른 인보와 달리 표제나 권수제가 없고, 베틀 문양이 인쇄된 윤곽선 안에 인장을 찍었다. 일본 내무관료이자 조선총독부 관료였던 마츠무라 마츠모리(松村松盛), 동경미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을 지냈던 타나베 이타루(田邊至), '南洋의 貿易王'이라는 별칭을 가진 실업가 오카노 시게소(岡野繁藏), 아사히 신문사(朝日新聞社) 사장을 지낸 무라야마 나가타카(村山長舉) 등의 일본인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던 한국화가 鄭鍾汝와 李應魯, 문화계 수집가 全鑿弼 등 《동유인보》에는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계·실업계·문화계 인사들의 인영이 대거 실려 있다.



〈그림 17〉 2종의 金九印, 20.5×14.6cm, 《東游印譜》所收, 국립민속박물관.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동유인보》의 제작시기와 차이가 난다. 서화가 崔禹錫, 閔宅基, 金熙舜, 鄭雲勉, 徐丙五, 黃庸河 등 김태석이 1930년대 초반에 호남서화단에서 교유했던 인사들의 인영이 다수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김태석이 일본에서 귀국 후 1946년에 조직한 大東翰墨會 관련 인영들도 실

106) 金晴江, 1975 『韓國篆刻印章論』 앞의 책, 23면.

107) 후손에 의해 작성된 〈성재선생인존목록〉에는 《동유인보》가 1,032개의 인영에 16책이라고 하여 현재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17책과는 차이가 난다.

려 있다. 이로 볼 때 《동유인보》는 제일 시기를 포함하여 귀국 전·후에 새긴 인장도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白凡 金九에게 새겨준 인장을 들 수 있다(그림 17).<sup>108)</sup> 2종의 김구 인장 중 세 면에 각각 따로 찍은 한 세트의 인장은 현재 백범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다. 이 인장의 측면에는 병술년(1946) 봄에 성재가 새겼다는 내용의 측관이 새겨져 있어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에 새겨준 인장임을 알 수 있다.<sup>109)</sup> 따라서 《동유인보》에 실린 인영은 김태석이 일본에 체류했던 시기(1938-1944)에 새긴 인장뿐만 아니라 전·후에 새긴 인장도 일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태석이 일본에서 귀국한 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전국 단위의 서예 조직을 결성하였는데 바로 大東翰墨會이다. 창립목적은 ‘조선의 고유한 전통과 건국이념을 현창함에 적당한 서도예술을 확립하여 국가문화에 공헌하려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습자교습의 연구, 전람회 등의 개최와 출판물 발행, 우수서예학도의 표창, 서도용구의 품질개선과 구입알선 이었다. 당시 吳世昌·安鍾元·金容鎭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이사는 金在寅 외 6명, 이밖에 李範昇 등 18인이 참여하였고, 김태석이 회장을 맡았다.<sup>110)</sup>

협회가 창립된 그해 6월 대동한묵회는 미군정청과 자유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제1회 全國翰墨展을 개최하였다. 일반부, 학생부, 아동부로 나누어 심사를 하였는데,<sup>111)</sup> 출품작이 2317점이나 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sup>112)</sup> ‘서도의 계발과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동포의 구제’를 전람회의 취지로 내걸었던 게 주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13)</sup> 전시는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덕수궁에서 열렸으며,<sup>114)</sup>

108) 《동유인보》에 찍힌 김구의 인장은 2종류이다. 하나는 ‘金九之印·蒼巖后·白凡’을 새긴 인장이 한 면에 같이 찍혀있고, 나머지는 ‘金九·白凡·寬和’를 새긴 인장이 각각 3면에 따로 찍혀있다.

109) 한양대학교박물관 편, 2011 『한국인과 인장』, 한양대학교박물관, 59면.

110) 『동아일보』 1946년 3월 3일, 『大東翰墨會創立』; 『자유신문』 1946년 3월 6일, 『大東翰墨會展覽會』.

111) 『자유신문』 1946년 4월 21일, 『全朝鮮翰墨展』.

112) 『자유신문』 1946년 6월 11일, 『大東翰墨展 廿一日 德壽宮서』.

113) 『동아일보』 1946년 6월 2일, 『全國翰墨展』.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2천원을 이재동포 구제금으로 기증하였다.<sup>115)</sup> 출판작 중에는 김구를 비롯하여 이승만·이시영·여운형·허헌 등 정계 및 법조계 인사와 오세창·민형식·김용진·김진우·이건식·이병기 등 학계와 예술계를 대표하는 30여명의 찬조출품이 있어 이채를 띠었다.<sup>116)</sup> 이처럼 좌우의 대립이 첨예했던 시절에 전람회라는 방식을 통해 각계의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보수적 성격이 강한 서예가 민족미술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동한목회의 활동상은 이후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협회가 결성된 지 일 년도 못 돼 폐지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김태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30주년이 되던 1948년에 대한민국의 제1호 국새로 불리는 ‘大韓民國之璽’를 비롯하여 대통령인, 장차관인, 정부산하기관인 등 177과의 인장을 새겨 국가에 기증하였다. 그 인영을 모아놓은 것이 《璽印圖攷》(민속 15606)이다(그림 18).



〈그림 18〉《璽印圖攷》표지, 大韓民國之璽, 26.6×18.6cm, 국립민속박물관.

권수제에 해당하는 내지에는 ‘大韓民國三十年八月 國務院總務處印本’이라고 쓴 글씨와 함께 ‘金台錫篆 朴均達刻’이라고 써어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30주년이 되던 1948년 8월에 김태석이 인장의 글씨를 고안하고 박균달이 새겼음을 알

114) 『자유신문』 1946년 6월 28일, 『全國翰墨展 七月七日까지 延期』.

115) 『자유신문』 1946년 8월 21일, 『大東翰墨會서 罹災同胞救濟金』.

116) 『자유신문』 1946년 5월 30일, 『異彩 락 要人的 贊助出品』.

수 있다. 박균달은 당시 총무로 2가에서 ‘天賞堂’이라는 도장포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천상당은 정부에서 발주한 관인제작 용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당시 총무로 일대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돈을 벌었다는 전언도 있다.<sup>117)</sup> 김태석의 후손 김규상 씨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옥새를 만들라고 해 총무로 2가에 있는 누군가의 도장포에서 장차관 인장까지 일체를 만들어 기증했다는 전언과도 일치한다. 박균달이 당시 국새와 대통령인을 제작하고 찍은 가족사진이 후손의 제공에 의해 알려진 바 있다.<sup>118)</sup> 사진 배경의 정면에 걸린 글씨 액자는 전형적인 김태석의 전서로, 이들 간의 관계가 사제지간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새인도고》에 실린 인영은 바로 밑에 인문, 재질, 서체, 크기, 제작 일시를 기입해놓았다. 지금은 사라져 아쉬움이 큰 대한민국 1호 국새 제작을 임정수립 30주년 되던 해에 김태석과 박균달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 4. 맺음말

그간 한국 서예사에서 오세창은 추사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거론되어 왔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감식안을 지닌 서화사 연구가이자 근대기 서예·전각의 발흥을 이끈 예술가로서의 업적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룬 업적과 위상은 추사의 학예사상을 계승한 개화의 선구 부친 오경석이 큰 배경이 되었음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추사 이후 오경석·오세창 부자로 이어지는 흐름은 지금까지 근대기 금석·서예의 주류로 확고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역설적이게도 근대기 서단의 다양한 흐름에 대한 관심을 소홀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과연 추사 이후 오경석·오세창 부자로 이어지는 흐름 외에 또 다른 분화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흐름은 없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유파로서 추사의 말년 제자 김석준을 거쳐 김태석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주목하게

117) 『조선일보』 2005년 11월 19일, 이석우 기자 「정부 초기 주요官印 모두 사라졌다」.

118) 박균달의 가족사진은 『조선일보』 2005년 11월 19일, 위의 기사 참조.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김태석 생애의 단절된 시기를 복원하고,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예술 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태석은 전문기술직을 세습한 중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대부분 잡과에 응시하던 선대와 달리 김태석은 식년으로 치른 사마시에 생원으로 입격하여 정3품인 평창군수에까지 올랐다. 궁내부 관료로 있던 30대 초반 그는 고종과 영친왕의 인장을 새기는 한편, 1904년 경운궁 화재사건으로 인한 왕실 인장 모각사업에도 참여하였다. 그가 젊은 나이에 왕실 인장 제작에 참여하고 후에 전각가로서 명성을 얻은 것은 목판인쇄소를 운영했던 그의 부친 김재하의 영향이 무엇보다 컸으리라 짐작된다. 김태석은 당시의 대표적 위향시인이자 추사의 말년 제자인 김석준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로부터 전수받은 시·서에 대한 이론은 추사 김정희와 우선 이상적의 가르침을 이은 것으로, 당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청대 碑學派 서가들의 신조류를 적극 수용한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다. 김태석은 당대 최고의 서화가이자 전각가인 정학교와 강진희와도 선·후배로 교유하였다. 왕실 인장 제작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 전부터 스승 김석준의 가교 역할과 선대부터 이어온 세교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김태석은 제실미술위원으로 일본에 이어 중국에 파견되어 20년 가까운 세월을 북경에서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서예와 전각을 통해 예술계 및 유력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새로 탄생한 중화민국에서 인주국 축탁직으로 근무하며 중화민국국새와 임시초대총통 위안스카이의 직함인을 새긴 것은 북경 지역에서의 그의 역량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김태석은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요시찰 대상으로 일경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1922년에는 무장투쟁운동을 지향했던 김규홍·박용만과 함께 흥화실업은행 설립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결국 은행 설립의 취지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김태석이 둔전병제 실현을 목적으로 한 독립운동 사업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은 그가 근대기 예술가로서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돌아와 10년 정도 국내에서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호남일대를 순회하며 전람회와 전각 반포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비록 2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규상·이광렬 등 그의 서예와 전각을 추종하는 그룹이 형성될 만큼 뚜렷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들이 1935년 호남지역 최초의 서예교육기관인 翰墨會를 결성하여 서화 대중화를 꾀했던 배경에는 김태석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도 분명히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이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호남서단에서 뚜렷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김태석의 역할이 새롭게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김태석은 해방 직전 일본에서 영구 귀국하여 대동한목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서단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위상을 갖추는 한편,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회적 격변기에 전람회 방식을 통해 단합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결국 임정 수립 30주년 되던 1948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제1호 국새 제작 사업을 주도한 것이 그의 생애 마지막 업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논의를 심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1930년대 호남지역에서의 활동상과 1944년에 영구 귀국하기 전 6년간의 일본에서의 활동상이다. 이 부분은 당시 제작한 《남유인보》와 《동유인보》의 세밀한 검토에 의해 보완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보에 실린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인적관계망에 대한 분석은 김태석의 일본 활동상 및 호남지역 서화가들과의 교류와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주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 김태석, 전각, 인보, 흥화실업은행, 대동한목회, 대한민국국새

투고일(2020. 1. 28), 심사시작일(2020. 1. 30), 심사완료일(2020. 2. 20)

〈Abstract〉

Life and Artistic Activities of Kim Tae-seok 金台錫 (1874-1951),  
a Calligrapher-Engraver of Modern Times

Yoo, Jibok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fe and artistic activities of Kim Tae-seok, who, along with Oh Se-chang (吳世昌), was recognized as master of modern calligraphy and engravings.

Kim Tae-seok's family was of middle class, and he became magistrate of Pyeongchang County because he engraved the seals of Emperor Gojong and King Yeongchin while he was an official of the Ministry of the Royal Household and he participated in reproducing the royal seals after a fire at Gyeongungung Palace. Kim Tae-seok was the disciple of Kim Seok-jun (金奭準), who was a leading commoner poet of the time and a late student of Kim Jeong-hui (金正喜). The theories on poetry and calligraphy Kim Tae-seok learned from Kim Seok-jun succeeds the academic line of Kim Jeong-hui and Yi Sang-jeok (李尙迪). Kim Tae-seok acquired broad knowledge of engraving through his association with Jeong Hak-gyo (丁學教) and Kang Jin-hui (姜璣熙), the best calligraphers and painters as well as engravers of the time. These relationships were influenced by the bridging role played by Kim Tae-seok's teacher Kim Seok-jun, connections Kim Tae-seok cultivated during hi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to engrave royal seals, and the long-standing friendship of Kim Tae-seok's family and ancestors.

Kim Tae-seok was dispatched to Japan and Qing China as art examiner in 1908, and he spent nearly 20 years in China. In particular, he displayed his abilities to the fullest when he engraved the National Seal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seal of title of its first *de facto* president Yuan Shikai (袁世凱) while working as an official in the Bureau of Seals of the newly created Republic of China. Meanwhile, Kim Tae-seok

---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of Korea, Jeonju Universit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Heunghwa Industrial Bank (興華實業銀行), which was established in Beijing in 1922 with the aim of realizing an armed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the farmer-soldier system (屯田兵制). The record of his participatio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Beijing will serve to elevate his status as an artist.

After returning from China, he toured Jeonju and other Jeolla provinces in the early 1930s and used calligraphy and engraving exhibitions to vigorously display his skills. The impact of his calligraphy and engraving was great enough, despite the short period in which he was active, to create a group of followers led by Choi Kyu-sang (崔圭祥) and Lee Kwang-ryul (李光烈). Kim Tae-seok formed a nationwide calligraphy organization named Daedong-hanmukhoe (大東翰墨會) after permanently returning to Korea from Japan just before Korea's liberation. Through this organization, h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calligraphy world by searching for a way to unite the leftists and the rightists through exhibitions at a time when the two sides were sharply divided. In 1948, thirty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Kim Tae-seok led the project on making the first national se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request of Rhee Syng-man, its first president. This became the last achievement of Kim Tae-seok's life.

**Key Words** : Kim Tae-seok, Engraving, Collection of Impressions of Seals (印譜), Heunghwa Industrial Bank (興華實業銀行), Daedong-hanmukhoe (大東翰墨會), National Seal of the Republic of Korea